

# 홍천사 사십이수(四十二手) 천수천안 관음보살상(千手千眼觀音菩薩像)의 도상특징과 편년연구

문명대\*

- I. 머리말
- II.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조성배경
- III.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유래와 도상특징
- IV.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양식특징과 편년
- V.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의의
- VI. 맺음말

## I. 머리말

홍천사 42수 관음보살상은 조선 초기의 가장 진귀한 금동보살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원래 천수천안을 가진 관음보살상(千手千眼觀音菩薩像)이지만, 이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천수(千手)가운데 42개의 손 즉 42수(手)만 표현하여 42수 관음이라 말하고 있다.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신라 때 분황사에 벽화로 그려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등장한 예이다. 이후 많은 상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되지만, 현존하는 예는 극히 희귀한 편이다.

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다비상(6臂)과 굴불사 사방불 복면 다비상이 천수관음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한 편이다. 확실한 조각상으로는 이 상과 함께 기메박물관 소장 42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과 국립소장 소장 32수 상 및 안국동 개인소장 32수 천수관음보살상 등이 확실한 대표작이며, 불화로는 리움미술관 소장 천수천안 관음보살도와 일본 지광사 소장 천수천안 관음보살도도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시 희귀한 편이다.

따라서 이 홍천사 사십이수 관음보살상은 큰 크기로나 뛰어난 질로서 우리나라 천수천안 관음보

---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살상을 대표하는 희귀한 예로 천수천안 관음보살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홍천사 42 수 관음보살상은 우리나라 조각사상 가장 중요한 불상의 하나로 높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첫째 42 수 관음보살상의 조성배경에 대해서 신앙과 조각상의 조성 배경을 논의하고자 하며, 둘째 도상특징, 셋째 양식과 편년, 끝으로 의의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 II.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조성배경

홍천사는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神德王后, 康氏)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태조 6년(1397)에 왕실의 원찰로 정동에 창건되었다<sup>1)</sup>. 이 홍천사는 선종인 조계종의 본사(本寺)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흥덕사, 흥복사, 진관사, 장의사와 함께 조선초기 5대 왕실 원찰로 수도 한성의 대표적인 사찰로 저명하였으나 태종때(태종 8년 1408 10월 21일) 화엄종으로 이전되는 등 더욱 융성하게 된다. 홍천사는 왕실의 원찰로 저명했기 때문에 건립때부터 왕과 왕실의 관심이 지대했다<sup>2)</sup>. 태조 6년(1397)년에 왕이 홍천사가 건립되는 공역을 살펴보고 이어 다시 왕이 행차한다. 태조 7년(1398)에는 태조가 사리전(舍利殿)터를 둘러 본 후(4월 28일) 사리전 3층을 건립하도록 했으며(5월 1일), 탑이 건립되자 홍천사에 행차하여 사리탑을 관람했다(6월 15일). 정종 1년 10월 19일(1399년)에는 사리전을 낙성했는데 상왕 태조가 행차하여 수륙재에 참석한다. 태종 10년(1410년) 5월 14일에는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홍천사 탑 수리를 명했고, 태종 11년(1411년) 5월 18일에는 사리탑을 중수한 후 신의왕후를 위하여 법회를 열었다. 이외에 사리각 친견과 예불을 위하여 왕은 계속 홍천사에 순행하고 있어서 홍천사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세종때는 세종 1년(1418년) 중국사신 황엄이 홍천사에 가서 供佛齋僧하고 사리각에 들어가 사리를 친견했으며, 9월 8일에는 홍천사에 가서 석가진골사리와 사리 4매를 들어 태평관으로 돌아갔다. 그 후 이를 태평관에서 맞이하여 재를 설하고 있다.

---

1) 홍천사는 1397년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정릉에 왕실의 원찰로, 정동일대(덕수초등학교에서 조선일보 뒤)에 건립되었다가 정릉이 천릉 될 때 인 1407년에 다시 옮겨진 후 1669년 경에 다시 한번 옮겨졌다가 1794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안된 왕실의 원찰이었다. 홍천사의 역사는 다음글을 참조할 수 있다.

① 손신영 「興天寺와 華溪寺의 건축장인과 후원자」 『강좌美術史』 26-1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6) pp. 423~448 참조

② 서울시편 『興天寺 실측조사보고서』 (세환건축, 1988, 12)의 홍천사 연혁 참조

2) 여기에 대해서 朝鮮王朝實錄 太祖, 太宗, 世宗 조 참조(「李朝實錄佛教抄存」 참조 『東國思想』 제 1집)



도1 흥천사 42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

이상의 사료에서 보면 흥천사는 사리전을 건립하면서<sup>3)</sup> 부처님의 진골사리와 진신사리를 많이 봉안하여 불사리 봉안처로 저명했다고 하겠다. 이 사리는 자장이 오대산에서 이안해 온 것인데 태조가 다시 통도사에서 이안해 온 것이라고 한다. 중국 사신들이 이 영험한 흥천사 사리를 본국으로 모셔갔다고 볼 수 있으며 1430년 불상까지도 이안해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흥천사의 사리와 불상들이 중국 명나라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사실 신라 이래로 내려온 유서깊고 영험한 사리여서 중국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바꿔치기 까지 했으나 결국 이 영험한 사리는 중국 황제도

3) 흥천사 사리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강병희 「興天寺 사리전과 石塔에 관한 연구」 『강좌 美術史』 19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12)

알고 있는 사실이라 속일 수 없어 결국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세종 1년, 1418년 9월 6일자).

이 금동 42수 관음보살상은 ①홍천사 건립 당시에 홍천사에서 조성, 봉안했거나 ②이전의 고려시대에 조성된 관음보살상을 이안했거나 ③아니면 조선초에 다른 사찰에서 조성한 관음보살상을 이안했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사십이수관음상의 도상 특징과 뛰어난 작품성으로 보아 이 셋 중 첫째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즉 홍천사가 당시 왕실 원찰이자 조계종 본사라는 높은 격을 생각하면 홍천사에서 조성한 불상과 장엄물 등을 직접 국왕이 홍천사에 하사하고 있는 사실에서 홍천사의 불상들은 모두 국가 장인들이 조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불상들의 격은 최고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초에는 중국 사신들이 가져온 작은 小불상 몇 예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홍천사 사리전의 사리와 불상 등 많은 사리와 불상(諸佛菩薩名僧의 558과)들을 중국 사신들이 가져가고 있었던 사실(세종 1년 9월 18일)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I.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유래와 도상특징

#### 1. 42수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유래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십이수(四十二手) 관음보살상은 천수천안 관음보살상(千手千眼觀音菩薩像 : Sahasrabhuja-avalokitesvara)이다.<sup>4)</sup>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상(像)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현하기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면서 불상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길수인 40의 손과 40의 눈을 나타내고 그 위에 본존상의 두 손과 두 눈을 합하면 42수와 42안이 된다. 대개 손 위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눈 보다는 손에 중점을 두므로 42수가 뚜렷이 도상으로 형상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은 힌두교의 다면다비상(多面多臂像)에서 유래한다. 힌두교의 사상을 받아드린 불교는 밀교(密敎)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면다비상을 수용하여 11면관음이나, 1면 8비 같은 변화관음을 조성하고 신앙한다. 이를 좀 더 극대화 시켜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진

---

4) 興天寺誌의 三角山 興天寺 四十二手觀世音菩薩 佛糧施主記(1894)에 42수 관세음보살이라 기록한 것을 보면 절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십이수 관음보살로 불렀던 것 같다.



도2 돈황 제161굴 천정11면 천수관음보살상(만당)



도3 돈황 제17굴 천수관음상(943)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 나타난 것이다.

천수천안관음보살에 관한 경전들<sup>5)</sup>은 7세기 중엽경에 번역된 지통역(智通譯)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天眼天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에서 시작하여 십여경전이 번역된다. 가법 달마역, 보리유지역(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神經)불공역(不空譯)(千手千眼觀音菩薩大悲心陀羅尼經), 소박라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1면의 천수천안관음상을 본존으로 한 경전은 지통역과 보리유지역의 경전이 있어서 1면 42수천수천안관음보살인 흥천사 42수관음보살상은 이 두 경전에 의거해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리유지역 경에는 18비(臂=手)의 인상과 지물을 설명하고 있어서 42수인 이상의 도상과 맞지 않으므로 지통역 경인 「천수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이하 신주경)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지통역경에 의한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은 당나라 때에 많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돈황석굴 158굴 입구 문 상부에 그려진 성당(盛唐)의 1면 천수천안(여의륜)관음보살상 벽화와 172굴 전실 좌우에 그려진 1면 천수천안관음보살상 벽화, 161굴 천정 11면 천수천안관음보살천

5) 천수천안관음보살의 경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 ① 金浩星 『千手經의 새로운 연구』(민족사, 2006)
- ② 韓太植(寶光) 「韓半島에서 만들어진 疑偽經에 대하여」 『印度學 佛敎學 研究』45 (日本 印度學佛敎學會, 1996) pp. 201-209
- ③ 金月雲 「日用儀食隨聞記」(중앙승가대학 출판부, 1991)



도4 돈황 제17굴 천수관음상(981)



도5 돈황 제3굴 천수관음상(元代)

정화(만당) 등 초당에서 만당기에 이르는 벽화들이 여러점 남아있어서 중요시 된다.

천수천안관음보살도(943년)와 북송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입상도(기메박물관 981년)는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도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돈황 3굴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입상도는 이를 잘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유림굴에도 천수천안관음보살상과 벽화가 여러점 남아있다. 39굴의 경우 관음 벽화는 입상이고 1면 32수 천수천안인데 비해 관음상은 1면이나 벽화는 51면과 11면 등이어서 차이가 보인다. 즉 왼쪽 51면 천수천안관음상 벽화 앞의 상은 1면 6수 천수천안관음보살이고, 반대편 오른쪽 11면 32수 천수천안관음상 벽화 앞의 상은 역시 1면 6수천수천안관음보살상인 것이다. 이 경우 소상(塑像)이어서 42수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6수만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우리나라에도 수용된다. 눈먼 어린이의 눈을 뜨게 한 분황사 11면 천수천안관음도(8세기), 오대산의 동대, 천수천안관음상 등이 조성 또는 신앙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천수천안관음신앙이 크게 유행했고 조성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신라시대의 실제 상이 현존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시대에 속하는 상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sup>6)</sup> 물론 기메박물관 소장 천수천안 관음보살상, 국립박물관 소장상, 흥천사 본 관음상도 고려로 분류되



도6 유림39굴 천수관음상(티벳시대)



도7 유림 3굴 천수관음상(서하)

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려말 조선초라는 광범위한 시대로 분류되거나 조선초로 분류하므로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이 홍천사 상도 고려말 조선초의 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원 정릉의 홍천사에 봉안되었던 상인지 다른 사찰의 상이 홍천사로 이안된 것이었는지 역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나 이 상의 시대적 여건상 홍천사 창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밝혀내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이외 불화의 예로는 고려때의 삼성 리움 미술관 천수천안관음보살도, 조선때의 1532년 일본 지광사 소장 천수천안관음보살도, 20 세기의 대흥사 관음도, 대산사 관음도 등 극히 일부가 남아 있는 편이어서) 참고가 된다.

6) 우리나라 천수천안관음신앙과 연관지어 천수천안관음불화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한 글이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①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信仰과 千手觀音圖」 『정토학연구』 제 17집 (한국정토학회, 2012) pp. 149-196

7) 김정희 「앞의 논문」 『정토학연구』 제 17집 (2012) 참조

## 2. 도상특징



도8 흥천사 42수 관음보살상

흥천사의 사십이수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하 42 수관음보살상 또는 천수관음보살상이라 할 수도 있음)은 지물 외에는 거의 손상없는 완벽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은 두손외에 좌우 각각 20 수씩 펼쳐져 있는 팔과 손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다. 이와 함께 이 상의 대표적인 도상특징은 세장함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눈에 띄는 특징은 보관(寶冠)이다. 이 보관은 높은 고관이다. 보관 테두리를 영락으로 장식하고 관 정면은 삼각형으로 꾸며 영락과 넝쿨줄기무늬로 새기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좌우와 상면으로 휘어지면서 올라가 영락과 꽃무늬로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기 짝이 없다. 이런 보관은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상 등에 약간 나타나지만, 1451년 금강산 은정골 출토 관음보살상이나, 1450년 통도사 금동삼존관음상, 매곡동 관음상, 심곡사 탑 보살상, 특히 티벳계 명양식 보살상 보관의 예와 상통하는 줄기형 보관이어서 주목된다.<sup>8)</sup>

둘째 얼굴의 세장함이다. 이마는 비교적 짧지만 눈썹에서 눈, 눈에서 입, 입에서 턱까지 거리가 긴





도9 머리부분(앞)



도10 머리부분(뒤)

편이어서 얼굴이 유난히 길게 보이며, 코도 낮고 긴 편이고, 턱도 낮고 뾰족하며 입가의 보조개를 유난히 깊게 하여 인중도 길면서 튀어나올 듯 보여 특이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길고 특이한 얼굴은 기본적으로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상(1447년 중수)의 얼굴과 유사하지만 1450년 통도사 금강산출토 금동삼존상, 1451년 금강산 은정골 금동삼존상, 1450년 경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매곡동과 심곡사 탑 금동불상 등 티벳계 명 양식 계통 불상 등과 이 영향을 받은 1458년 흑석사 목아미타불상<sup>9)</sup>, 왕룡사 목아미타불상, 1482년 천주사 이마타불상 등의 얼굴 특징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긴 코, 긴 눈썹, 가늘고 긴 눈 등도 유사하지만 입과 턱 주위의 특이한 특징은 파계사 보살상, 1466년 상원사 문수보살상 등과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이런 특이한 모습은 1407년 상왕산 보살상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sup>10)</sup>

셋째 허리가 잘쭈한 장신의 긴 상체이다. 상체는 삼각형이고 허리를 허리띠로 꽉 조인 듯 잘쭈하며 아랫배가 볼록한 긴 장신이 특징이다. 이런 허리를 꽉 조인 듯한 장신은 파계사 관음보살상과 1407년 상왕산 금동보살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1450년 통도사 금동아

8) 문명대 「조선 전반기 조각의 對 中國(明)과의 交渉研究」 『조선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6. 6) pp. 131-151

9) 문명대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강좌 美術史』36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06) pp. 109-186

10) 문명대 「앞논문」 『강좌 美術史』 36. (2011. 6)



도11 손부분(향좌)



도12 손부분(향우)

미타삼존상의 보살상, 1451년 금강산 은정골 보살상 등 티벳계 명양식계 금동불상 특히 보살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즐라맨 듯 가는 허리는 최근 출현한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보살상에 보다 잘 보이고 있다.<sup>11)</sup> 11면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질속한 허리가 이와 유사한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 42수의 유난히 긴 손이다. 중앙 두 합장 수인과 좌우 20개의 큰 손과 유난히 긴 손가락은 괴이하게 보이기 까지 한다. 신체에 비해서 유난히 큰 손과 긴 손가락은 금강산 출토 1450년 통도사삼존상과 금강산 은정골 삼존상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상의 손과 최근 출현한 금강산 출토 아미타삼존상의 손이 가장 유사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2)</sup>

42수 가운데 합장 2수를 제외하고 40수에 모두 지물이 있었겠지만<sup>13)</sup> 현재는 왼쪽 20수 가운데

11) 문명대 「금강산출토 티벳계 명양식 계통의 금동아미타삼존상(附石函)의 연구」 『강좌 美術史』45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5. 12)

12) 문명대 「앞주」11 참조

13) 대비심다라니경에는 42수가 모두 나열되어 있다. 1. 여의주, 2. 견색, 3. 보발, 4. 보검, 5. 발절라, 6. 금강저, 7. 시무외, 8. 일정마니, 9. 월정마니, 10.보궁, 11. 보전, 12.양류지, 13.백불, 14.보병, 15.방패, 16.월부, 17.옥환, 18.백련화, 19. 청련화, 20. 보경(鏡), 21.자련화, 22.보협, 23.오색운, 24. 군



도13 흥천사 42수 관음상 뒷면

10 수(오색운·화궁전·발절라·보탁·불퇴금륜·연화·군지·보경·백불·여의주), 오른쪽 20 수 가운데 1 수(宝螺手)만 지물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긴 세장의 특징 외에 화려한 장식성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보관의 화려한 장식은 물론 가슴, 배, 다리, 팔에 걸쳐 영락 장식이 빈잡할 정도로 복잡하고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다. 가슴의 목걸이는 갖가지 고리에 장식이 메달려 있는 등 매우 복잡한데 배에서 연주문들이 능형으로 표현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결실되었고, 이 영락들이 무릎으로 내려가 복잡한 고리를 이루면서 다섯군데나 집합적인 영락장식군을 이루어 복잡 화려한 영락장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징은 고려말 조선초의 보살상들 가운데 가장 복잡 화려한 장류사 영락장식 보다 더 화려한 편인데, 이 보다는 1407년 상왕산 출토 아미타삼존상 보살상의 영락장식도 보다 더 복잡하고 화려한 것이 이 상과 보다 흡사하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국립박물관 11면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영락장식도 이 상의 영락장식과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sup>14)</sup>

지, 25. 흥련화, 26. 보주, 27. 보라, 28. 축루보장, 29. 수주, 30.보탁, 31. 보인, 32. 구시철구, 33. 석장, 34. 합장, 35. 화불, 36. 화궁전, 37. 보경(經), 38. 불퇴금륜, 39. 정상화불, 40. 포도, 41. 감로, 42. 총섭천비수

14) 『佛』 (불교중앙박물관. 2007.3) pp. 180-183 도. 40, 42 참조

#### IV.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양식특징과 편년

##### 1. 양식 특징

앞장에서 이 보살상의 도상특징을 논의하면서 양식특징도 다소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구도, 비례, 형태, 양감과 선 등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도 비례

홍천사 42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은 첫째 엄격한 좌우 대칭의 구도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보관·얼굴·신체 등도 좌우 이외에 20수씩 좌우 대칭적으로 엄격하게 구성하고 있어서 특이하고 인상적인 구도미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지물도 거의 없어지고 천안의 눈들은 개금 때문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서 효과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복잡다단한 가운데서도 일정한 균제미와 함성을 지르는 듯 환호작약하는 듯한 기이한 모습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sup>15)</sup>



도14 국립박물관 32수 천수관음상



도15 32수 천수관음상 실측도 개인소장  
1978.6.1.작도(문명대 외)

15) 국립중앙박물관 11면 천수천안관음보살상 등 조선 초의 천수천안관음보살상과 특히 대비되고 있다.  
(앞주 12 참조)

## 2) 형태미

앞장에서 말했다시피 이 관음보살상은 얼굴은 하나밖에 없는 1 면인데 비해 팔은 42 수를 표현하였지만 손에 각각 눈을 표현하여 천수천안을 최소한으로 표현하므로써 최대한의 천수천안적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보살상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장신(長身)과 장식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고 있다. 판도 높고 얼굴도 길고 신체도 장신이고 손도 크고 손가락도 긴 특징을 보여준다. 길고 크고 높은 장신적인 형태미가 이 상의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도16 기메박물관 42수천수관음상

이러한 장신적인 특징은 조선초기 불상들 특히 티벳계 명양식의 불상들에서 주로 나타난 현상이며, 특히 1450년 통도사 상 내지 1451년 금강산 은정굴 불상 그리고 최근 출현한 금강산 아미타삼존불상 등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도17 통도사 금동아미타삼존상 1450



도18 금강산 은정굴 아미타삼존상 1451

16) 티벳계 명양식 계통의 불상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 ① 문명대 「고려조선시대의 조각」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5)
- ② 이은수 「조선초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明代 라마 불상양식의 영향」 『강좌 美術史』15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0)
- ③ 최성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강좌 美術史』19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 ④ 문명대 「조선 전반기 조각의 對 中國(明)과의 교섭연구」 『朝鮮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 3) 양감과 선의 미

이 관음보살상은 양감이 강한편이 아니지만 입가나 질쭉한 허리의 굴곡, 볼룩한 배 등에서 보이듯이 일정한 볼룩감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 이 점은 42 비의 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다소의 양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선으로 나타내었을 때는 미묘한 선묘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팔이나 손, 그리고 영락장식에서 표현된 다소 섬세한 선묘는 어느정도 세밀한 선미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편년(編年)

도상 특징과 양식특징에서 어느정도 이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편년의 윤곽은 대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년기있는 상이나 중요한 도상들과 비교해서 이 상의 편년을 어느정도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앞장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시피 이 42 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은 고려말 조선초기 불상들에서 유래해서 조선 초기인 1450 년경의 티벳계 명양식 불상들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원류는 1330 년대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등에 있지만 어느정도 가까운 상들은 고려말 조선 초 양식인 1395 년(조성 또는 중수) 장륙사 건칠보살상이나 1477 년 과거사 건칠관음보살상 등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길고 세장한 관과, 얼굴, 신체, 손과 손가락은 물론 삼각형 상체, 질쭉한 허리 등은 조선초기의 티벳계 명양식 금동불상들과 가장 친연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450 년 금강산출토 통도사금은아미타삼존상<sup>17)</sup>, 1451 년 금강산 은정골 금동삼존상, 최근 출현한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등이 이 관음보살상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sup>18)</sup> 특히 1451 년 작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삼존상 가운데 관음보살상과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줄기형의 높은 관, 긴 얼굴, 입가의

---

2006. 6) pp. 131-152

⑤ 문현순 「명 초기 티벳식 불상의 특징과 영향」 『미술사연구』13 (1991)

17) 다음 주를 참고할 수 있다.

① 문명대 「高麗·朝鮮時代の 彫刻」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2. 5)

② 문명대 「조선 전반기 조각의 對 中國(明)과의 교섭연구」 『朝鮮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6. 6) pp. 131-152 및 pp. 137-138

③ 송은석 「通度寺聖寶博物館 소장 金銀製阿彌陀三尊佛坐像 研究」 『불교미술사학』 제 3집 2005 pp. 255-268

④ 안병찬 「통도사 소장 금은제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물 조사」 『불교미술사학』 제 3집 (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255-268

18) 문명대 「금강산출토 티벳계 명양식 계통의 금동아미타삼존상의 연구」 『강좌 美術史』45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5. 12)



도19 금강산 금동아미타삼존상(부 석함)

개성적 표현, 삼각형 가슴과 잘쭉한 허리, 크고 긴 손, 영락장식 등에서 같은 계열의 도상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상 자체의 구도, 형태, 양감 등도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42 수관음보살상은 1450년 전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려말의 특징도 일부 있지만, 세장한 세부도상과 함께 긴 상체와 잘쭉한 허리, 화려하고 번잡하기까지 한 독특한 영락장식 등은 다른 시대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적 특징이며, 특히 티벳계 명양식 계통의 불상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특징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물론 1407년 상왕산 출토 금동아미타불상에서도 유사한 도상특징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1468년의 매곡동 석탑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특히 관음보살상이나 심곡사 탑 불보살상에서도 보이고 있지만<sup>19)</sup> 1450년 경의 불보살상과 가장 친연성이 많아 1450년 경 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 진정환씨는 고려말로 보고 있으나 탑은 조선초로 정확히 밝히고 있다.

(진정환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특징과 성격」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 (국립전주 박물관 2014, 6) pp. 36-57

## V.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의 의의

고려말 조선초에 해당하는 현존(現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3 점이 알려져 있다. 국립박물관 소장 11 면 32 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및 기메박물관 소장 1 면 42 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그리고 안국동 개인소장 1 면 32 수 금동천수관음보살상과 함께 본 홍천사 1 면 42 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등이다. 이 가운데 기메박물관 42 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 도상 특징상으로는 본 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1 면 42 수라는 도상 특징이 동일하고 허리가 잘쭈ken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식상 다른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립중앙박물관 관음보살상은 11 면 32 수 관음상이므로 도상 특징도 다르고 양식도 기메상처럼 전통양식 계열에 속하고 세장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양식 계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허리를 졸라맨 듯 잘쭈ken 점만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1 면 42 수의 도상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장하고 늘씬한 특징의 티벳계 명양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특이한 천수천안관음보살 상이므로 도상 특징상 크게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존하는 우리나라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이 세 점 이외에 뛰어난 상이 거의 없으므로 본 홍천사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희귀한 조선초기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전반기까지의 불화도 고려 천수천안관음보살도는 삼성 리움미술관 고려 천수천안관음보살도와 일본 지광사(持光寺) 관음도 외에는 없고, 1900 년 전후 조선조 말 경의 몇 예 외에는 불화에서도 유존하지 않기 때문에 홍천사 상의 귀중성은 더욱 높다 할 수 있다.

셋째 3 점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가운데 2 점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본 상만이 사찰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 개인소장 1 점이 있으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편이다. 따라서 예불의 대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발휘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더구나 이 상이 만약 홍천사에서 조성 봉안 되었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라면 당시 홍천사의 사상과 신앙 경향 까지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홍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를 밝히게 되었다.

첫째 홍천사 관음보살상은 1 면 42 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뛰어난 작품성으로 보아 국가장인이 조성하여 왕실사원인 홍천사에 봉안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흥천사 사십이수관음상의 도상특징은 1 면 42 수를 가진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며, 이 도상 특징은 지통역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에서 유래한 상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천수관음보살상은 1450 년 전후의 티벳계 명양식에 속하는 천수관음보살상 등과 가장 흡사하므로 1450 년 경에 조성된 장신 계통의 보살상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서 장신의 늘씬한 양식을 대표하는 보살상으로 중시된다는 점을 밝히게 되었다.

끝으로 이 42 수 천수천안보살상은 현존하는 4 점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중 하나이므로 그 희귀성에서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의 신앙 경향까지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

### 주제어(Key Words)

흥천사(Heangcheonsa Temple), 천수천안관세음보살(Sahasra bhuja-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신덕왕후(Sinduk-Queen), 태조(Tejo Great king), 사리전(Sarira Jeon-House)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太祖,太宗,世宗 조(「李朝實錄佛教抄存」,『東國思想』제 1집)
- 『佛』(불교중앙박물관. 2007.3)  
서울시편, 『興天寺 실측조사보고서』(세환건축, 1988, 12)
- 강병희, 「興天寺 사리진과 石塔에 관한 연구」, 『강좌 美術史』 19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12)
- 金月雲, 「日用儀食隨聞記」(중앙승가대학 출판부, 1991)
-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信仰과 千手觀音圖」, 『정도학연구』 제 17집 (한국정도학회, 2012)
- 金浩星, 『千手經의 새로운 연구』(민족사, 2006)
- 문명대, 「高麗·朝鮮時代の 彫刻」, 『韓國美術史의 現況』(예경, 1992. 5)
- 문명대, 「고려조선시대의 조각」, 『韓國美術史의 現況』(예경, 1995)
- 문명대, 「조선 전반기 조각의 對 中國(明)과의 交涉研究」, 『조선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6. 6)
- 문명대,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강좌 美術史』36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2011.06)
- 문명대, 「금강산출토 티벳계 명양식 계통의 금동아미타삼존상(附石函)의 연구」, 『강좌 美術史』45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5. 12)
- 문현순, 「명 초기 티벳식 불상의 특징과 영향」, 『미술사연구』13 (1991)
- 손신영, 「興天寺와 華溪寺의 건축장인과 후원자」, 『강좌美術史』 26-1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2006-6)
- 송은석, 「通度寺聖寶博物館 소장 金銀製阿彌陀三尊佛坐像 研究」, 『불교미술사학』 제 3집(불교미술사학회, 2005)
- 안병찬, 「통도사 소장 금은제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물 조사」, 『불교미술사학』 제 3집 (불교미술사학회, 2005)
- 이은수, 「조선초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明代 라마 불상양식의 영향」, 『강좌 美術史』15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0)
- 진정환,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특징과 성격」,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국립전주 박물관, 2014. 6)
- 최성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강좌 美術史』19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 韓太植(寶光), 「韓半島에서 만들어진 疑僞經에 대하여」, 『印度學 佛教學 研究』45 (日本 印度學佛教學會, 1996)

## 홍천사 사십이수(四十二手) 천수천안 관음보살상(千手千眼觀音菩薩像)의 도상특징과 편년연구

문명대

홍천사 관음보살상은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뛰어난 작품성으로 보아 국가장인이 조성하여 왕실사원인 홍천사에 봉안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홍천사 사십이수관음상의 도상특징은 1면 42수를 가진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며, 이 도상특징은 지통역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에서 유래한 상으로 판단된다.

이 천수관음보살상은 1450년 전후의 티벳계 명양식에 속하는 천수관음보살상 등과 가장 흡사하므로 1450년 경에 조성된 장신 계통의 보살상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서 장신의 늘씬한 양식을 대표하는 보살상으로 중시된다는 점을 밝히게 되었다.

이 42수 천수천안보살상은 현존하는 4점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중 하나이므로 그 희귀성에서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의 신앙 경향까지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 Abstract |

## A Study on Iconographic Features and Chronology of the Heungcheonsa Sashipyisu (四十二手) Sahasra bhujā-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s(千手千眼觀音菩薩像)

Mun Myeong-dae

The Heungcheonsa Avalokitesvara Statue is probably the most likely to have been built and enshrined in Heungcheonsa, one of Royal temples by a national master with the outstanding work of 1 myeon and 42 su of Sahasra bhujā-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s.

The iconographic feature of Heungcheonsa Sashipyisu Avalokitevara statues is Sahasra bhujā-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s with 1 myeon and 42 su, and this iconographic feature is judged as a statue derived from Jitongyeok Cheonancheonbi Avalokitesvara Dharani Shinju Sutra.

This Cheonsu Avalokitesvara Statue is similar to the Cheonsu Avalokitesvara Statues belonging to the Tibet style around 1450, and thus represents the Bodhisattva statue of the tall figure system formed around 1450. Thus, it was found that the Bodhisattva statue is important as a representative of the tall figure leggy style.

These 42 items of Sahasra bhujā-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s are one of the four existing Sahasra bhujā-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s. Therefore, it is not only precious in its rarity, but we can also grasp some of the tendencies of early Joseon faith. Thus, it is true that these are valued as very valuable Sahasra bhujā-Sahasranetra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s.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15일 | 논문심사일 2017년 11월 2일 | 논문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10일